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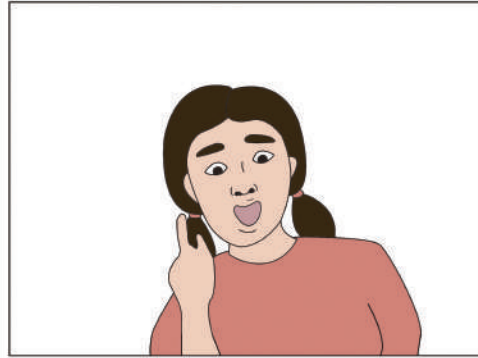
브랜드 멕시코나

작품명 땡초면 충분해! 가족편

영상(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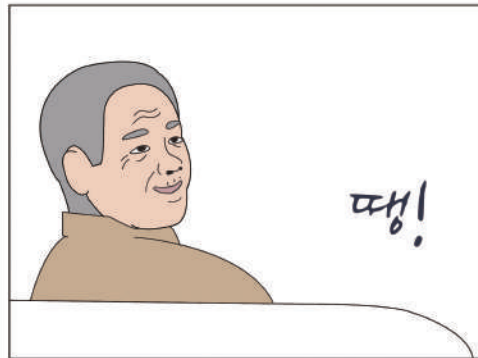
음향(AUDIO)

손녀가 질문을 한다.



손녀)
눈물 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소파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본다.



할아버지)
5초!

손녀)
땡!

요리를 하던 할머니가 옆을 돌아본다.



할머니)
2초!

손녀)
땡!

화면에 땡초치킨이 나타난다.



손녀)
땡!!!초!!!

땡초치킨을 먹는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멕시코나 땡초치킨을 맛있게 먹는다.



NA)
눈물나게 맛있다! 멕시코나 땡초치킨

브랜드 멕시코

작품명 땡초면 충분해! 회사편

영상(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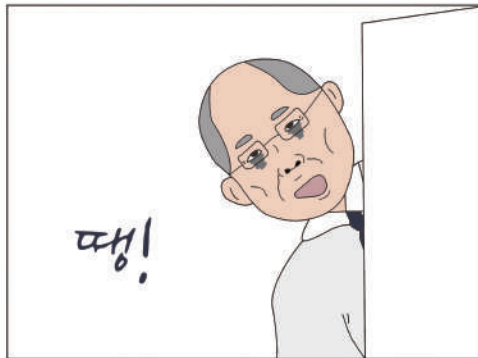
음향(AUDIO)

피곤해 보이는 인턴이 종이를 날리며 질문을 한다.



인턴)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칸막이 옆으로 부장님이 고개를 빼꼼 내민다.



부장) 5초!
인턴) 땡!

청소부 아주머니가 옆을 돌아본다.



청소부 아주머니) 2초!
인턴) 땡!

화면에 땡초치킨이 나타난다.



인턴) 땡!!!초!!!

땡초치킨을 먹는 인턴, 부장님, 아주머니 눈에서 다크써클이 사라지고 의욕 가득한 눈빛으로 멕시코 땡초치킨을 맛있게 먹는다.



NA) 화끈하게 맛있다! 멕시코 땡초치킨